

##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기(2차)

- St. Mary's Hospital을 다녀와서 -

최은주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1월 8일 새벽, 토요일 저녁부터 내린 눈들로 도로는 엉망이었다. 근래에 들어 이만큼의 눈이 내린 적이 드물었던 탓에 그만큼 걱정이 앞섰다. 이른 새벽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대전에서 올라오신 박희복 선생님은 일요일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셔서 여관을 잡아 하룻밤을 묵고 공항으로 오셨다. 서울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고 이윽고 출발장을 향해서 들어섰다.

그런데,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듯이 후쿠오카행 비행기의 출발지연 방송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십분, 이십분, 삼십분, 한시간, 그래도 비행기는 출발이 지연되었다. 8시 30분발 비행기는 10시가 넘어서도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만 내보내고 있었

다. 면세점을 돌아보는 것도 지쳐가던 무렵 일행은 공항내에서 가벼운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간단하게 우동과 샌드위치로 식사를 끝내고 모여있으려니 갑자기 후쿠오카행 승객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닌가? 기쁜 마음에 달려갔지만 그것은 탑승소식이 아니라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으니 식사나 하라면서 식사쿠폰을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쿠폰을 보면서 조금만 일찍 주지하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다시 식사장소로 가서 또다시 샌드위치를 먹었다. 다 먹고 내려온 순간 기쁘게도 탑승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그때만큼 기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부산에서 출발한 일행과 합쳐 드디어 전원이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비행기안에서 내준 식사는 바로 지겨운 샌드위치였다. 배가 고팠던 부산일행과는 달리 서울일행은 샌드위치를 보면서 한숨만 내쉴 수 밖에 없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의 입국절차는 그다지 어렵지않게 진행되었다. 다만 문제라면 라면의 통관문제였는데 아무리 라면이라고 말해도 세관원은 라면이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신라면은 라면이라고 써있는데 오징어짬뽕면

은 라면이라고 안 써있다는 것. 결국 그 문제는 박스를 뜯어서 포장을 보여줌으로서 해결이 났다.

우리들을 마중나오신 이케다선생님과 토도상을 따라 구루메에 있는 성마리아병원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서 이채로웠던 점은 바로 풍경이 너무나 전원적이라는 것이었다. 1월 8일은 성인의 날로 일본의 공휴일이라서 별다른 일정없이 마리안 하우스의 이용안내를 듣고 여장을 푸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있는 조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연수일정이 시작되었다. 병원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는 갑작스러운 자기소개시간이 있어서 다들 당황한 가운데 열심히 자기소개를 했다. 일행중에 일어를 무척이나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었고, 더욱 다행인 것은 자기소개만은 전부다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짧은 만남의 시간은 끝났고 오후에는 관광에 들어가게 되었다. 구루메시 관광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成田山에 있는 절, 高良山에 있는 신사를 둘러보고 이시바시이 문화센터를 둘러보았다. 비만 아니었다면 꽤 풍치 있는 경치를 볼 수 있었을 테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인해 그다지 제대로 둘러볼 기회는 없었다. 마리안 하우스에 돌아와서 여자들끼리 모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계획을 짜보았다. 캐널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군데를 둘러보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서까지 짰다.

1월 10일 부서별로 연수를 시작했다. 연수가 끝난 후 저녁에 후쿠오카까지 이동하기로 하고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모두들 試驗

場前역으로 향했다. 후쿠오카까지 가는 길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두들 안되는 일어, 영어, 손짓 발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교통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쌌지만 일단 집단으로 표를 구입하여 한 장당 600엔의 표값을 500엔으로 줄였다. 우리들을 걱정했는지 역에 근무하시던 분이 구루메역까지 동행해주시고는 특급열차를 갈아타도록 알려주었다. 후쿠오카 텐진역에 도착하니 어느새 저녁 7시경이 다되었다. 가고자했던 캐널시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텐진역 근처를 돌아보기로 했다. 9시 반에 모이기로 하고 제각각 흩어졌다. 몇 명씩 모여 돌아다녀보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마주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고 말았다. 텐진역 근처에서 나와 장정순 선생님, 이진이 선생님 이 셋은 돈코스 라면을 먹었다. 라면을 시켰는데 의외였던 점은 한국과는 달리 단무지나 김치 같은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받아본 라면 국물은 이 지역 특산담게 돼지고기 뼈를 곤탕인지 기름기가 똥똥 떠다녔다. 생각보다 그래도 맛이 담백했지만 그 국물을 다 마실 엄두는 나지 않았다. 이리 저리 길거리를 구경하면서 다니다 약속시간에 약속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남자들은 보이질 않았다. 십분만 더 기다려보자.. 십분만 더 기다려보자... 점점 특급기차의 막차시간은 다가오는데,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자 헐레벌떡 일행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입구에서 들어오는 방향을 못찾았구나.

1월 11일 학술강연회에 갔다가 후쿠오카에서 돌아와보니 마리안 하우스가 떠들썩했

다. 방사선과의 회식이 끝난 다음 모두들 마리안 하우스로 와서 쉽게 말하면 2차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열심히 마시고 떠들고 그렇게 어울린 탓에 다음날 아침 무지 힘들었던 분이 아마 두분 계셨던 듯 ^.

1월 12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녁식사를 했다. 각 과별로 모인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특이한 점은 김치를 밥도 없이 잘 먹는다는 것과 밥보다는 라면은 더 좋아한다는 점이였다. 게다가 오징어젓갈을 김에 싸서 먹는 광경은 그만 우리들의 입을 딱 벌리게 했다. 따라 먹어봤지만, 너무 짜서 입도 못 댈 지경이였다. 이번 연수팀의 일명 요리사 박희복 선생님의 김치부침개가 열광을 받은 것은 말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1월 13일 나가사키로 관광을 갔다. 그 날도 비가 왔다. 평화공원에 도착해서 평화공원을 둘러보고 왼쪽자료관도 돌아보았다. 왼쪽이 미친 영향을 생각한다면 원자폭탄이란 것이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비를 맞으면서 그라바옌으로 향했다. 그라바옌에 도착해서도 비는 오락가락했다. 그라바옌의 옛날 양옥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나가사키 앞바다는 생각보다 맑았고 활달해보였다. 그라바옌을 나서서 제각각 선물들을 사기 위해 가게들을 둘러보았다. 나가사키의 명물인 카스테라는 남자분들이 사시는 통에 그 맛을 구경할 수 있었다. 나가사키를 떠나 구루메로 오는 길에서 약간의 교통체증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경적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구루메에 도착해서는 MS레스토랑이란 곳에서 늦은 환영회를 가졌다. 그곳은 시간제로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 2시간

동안 무엇이든지 주문할 수 있는 곳이였기에 마음놓고 식사를 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은 일본인들이 적게 먹지는 않는다는 점이였다.

일요일 일어나보니 사방이 하얀 눈으로 덮여있었다. 벳부온천을 향해 가는 길은 험란했다. 큐슈지역은 눈이 1년에 한두차례 오는 곳으로 이렇게 많은 눈은 드문 경우라고 했다. 고속도로는 통행금지였고 한시간 반이면 간다면 벳부는 5시간이 걸려 도착할 수 있었다. 일단 한식집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카사키야마의 원숭이 공원을 둘러보았다. 그다음 8대 지옥 중 바다지옥과 혈지옥을 둘러보았는데, 바다지옥의 물색은 정말로 맑은 파란 빛이어서 인상적이었다. 벳부에 와서 온천을 안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 일. 온천장으로 향했다. 시설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온천물은 상대적으로 좋았다. 노천온천과 비슷한 야외시설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맞으면서 온천을 즐기는 기분이란 것은 생각보다 운치가 있는 일이었다. 눈꽃이 떨어져서 온천물 속으로 사라져들어간다. 그렇게 눈꽃은 따스한 물에 합쳐져서 사라져갔다.

월요일, 계속해서 눈이 왔다. 눈이 드문 지역이라서 학생들은 전부 다 들뜬 표정이였다. 들뜬 표정으로 거리 곳곳에서 눈사람을 만들었기에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눈사람들의 천국이 되었다. 저녁을 먹고 테라마찌를 향해 걸어갔지만, 이미 날은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진 뒤였기에 제대로 볼 수도 없이 그냥 걸어서 돌아왔다. 값싸고 맛있는 스시집을 알아내서 몇 몇은 그 스시집에서 스시를 맛보기도 했다. 화요일 간만에 자유시간을 가졌다. 대개의 경우는 구루메에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후쿠오

카까지 갔다온 사람들도 있었다. 뒤에 돌아와서 들은 소리는 무기들이 나갔으니 걱정은 안한다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리는 신무기쟁탈을 위해서 야쿠자들이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하나 였었다.

연수가 중반을 넘어선 수요일 방사선과 기사장님을 초청해서 다시 저녁식사를 했다. 처음 보는 특이한 스시-기억력이 나쁜 필자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와 일본식 덴뿌라를 맛보게 해주신 방사선과 기사장님께 정말로 모두가 다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스시와 덴뿌라를 먹었다. 목요일은 벳부의 여운을 살려서 구루메온천을 다녀왔다. 물은 벳부가 좋고 시설은 구루메가 더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금요일에는 다시 연수를 잘 마치고 간다는 인사를 조례에서 하고 평가회 및 반성회를 가졌다. 다들 하고싶은 여러 가지 말들을 했고 여러 가지 소감과 연수가 끝나는 섭섭함도 이야기를 했다. 송별회는 마리안하우스 1에서 있었고, 그곳에서 이별의 섭섭함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사진을 찍으며 온갖 부산을 떨었다. 오후에 이케다 선생님을 따라서 쇼핑을 했다. 어느 곳인가 찻집에서는 저마다 모두들 차를 사느라고 온갖 북새통을 띤 탓에 그 찻집의 일부 상품은 아마 동이 나지 않았나 싶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가게집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일본 차의 맛을 한번 보라며 샘플을 안기고 갈 정도였으니까.

토요일, 제발 그 날만이라도 맑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그 날도 비가 왔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아소산과 구마모또 관광에

나섰다. 여행만 떠났다하면 눈비가 오는 이유를 알 수 없어하면서 힘들게 아소산까지 갔지만 아황산가스 경보와 세찬 비바람에 한 치 앞 보기가 힘들었다. 혀를 차면서 아소산을 떠나 구마모또 성을 향해 출발했다. 구마모또 성은 일본 전통식 성으로 웅장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구마모또 성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반가웠던 것은 그나마 2주정도 한국을 떠나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웃으면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니 아이들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비가 멈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마모또를 떠나 구루메로 향했고, 몇 몇은 내친 김에 후쿠오카의 캐널 시티로 향했다. 캐널시티는 거대한 쇼핑몰이었고, 둘러보니 구입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아쉬운 마음으로 9시 반에 캐널 시티를 떠나 구루메로 돌아왔다.

일요일 아침 7시 반에 나름대로 정들었던 마리안 하우스를 떠났다. 마리안 하우스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왜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별다른 일 없이 후쿠오카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오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언제나 일행들을 잘 보살펴주셨던 이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왕언니 최혜순 선생님, 만형 박희복 선생님 알뜰살뜰 일행들을 챙겨주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코메디언 김광철 선생님, 2월에 만나도 여전히 재미있으시겠지요? 그외 연수팀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